

한동훈 “오만하고 군림할 때 감당못할 큰 위기 왔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발대식 후보들에 공천장 수여 “일하는 민생 여당론으로 차별화”

국민의힘은 19일 4·10 총선을 앞두고 당 조직을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개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장 수여’를 열고 총선에 나서는 후보자들에게 공천장을 수여했다. 총괄선대위원장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와 집권여당은 조금이라도 오만하거나 국민 앞에 군림하려는 모습을 보였을 때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가 왔다. 국민을 섬기는 자세, 따듯한 지적을 받드는 자세만이 22일 동안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 “여당의 약속은 실천력과 추진력이 담보되지 않는다. 동료 시민의 일상과 고통을 해결하는 죽집게 공약을 더 제시해야 한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이재명 사당화’를 추진하면서 허황된 공수표만을 남발하는 민주당에 맞서서 이행할 수 있는 공약을 세심하고 정교하게 제시하자”고 말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윤재옥 원내대표도 “정치 경제와 민생,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뒷받침하지 못한 지 오래됐다”며 “오늘 이 자리는 축하의 자리라기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함께 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총선은 개혁 대상이 되느냐, 개혁의

주체가 되느냐의 갈림길에 있다”며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오만하고 방심한다면 국민과 정치개혁, 미래에 대한 배신임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전략으로 ‘일하는 민생여당론’을 앞세워 야권의 ‘정권심판론’을 차단하는 동시에 정치개혁 어젠다를 주도하는 모습으로 민주당의 ‘당대표 사법리스크’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수도권 격전지에 출전하는 공동선대위원장들도 “가장 낮은 곳, 어두운 곳을 찾아서, 더 낮은 자세로 주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나경원), “정치의 기본은 공익과 사회를 위한 봉사”(안철수), “민생 세력이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야”(원희룡) 등을 강조하며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국민의힘 상징색인 붉은색 상의를 맞춰 입고 참석한 총선 후보들은 단상 아래서 ‘정치개혁’,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선거 승리 구호를 외쳤다. 당 정책위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후보자들에게 빅데이터 기반 지역별 맞춤 선거 전략을 제공했다. 총선 공약 개발을 주도한 유의동 정책위의장 겸 선대위 부위원장은 “깜짝 선물을 특별히 준비했다”며 “공약기획단장으로 활동한 유경준 의원이 오랜 시간 준비한 빅데이터 자료”라고 소개했다. 행사에서는 한 위원장이 30·40세대 후보 5명에게 주요 공약 자료를 담은 택배 상자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한 위원장은 이후 비공개로 후보자들과 일일이 기념사진도 촬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장 수여식에서 정치개혁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면허로 국민 위협해서는 안 돼”

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발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일각에서 ‘단계적 증원’ 내지 ‘증원 결정 연기’를 주장하는 데 대해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또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 대란과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매년 국민들이 의사를 눈치를 살피면서 마

음을 줄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도 반문했다. 취임 후부터 지역·필수 의료 재건을 비롯한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이 모든 대책은 우리 정부가 홀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것이고, 정부가 함께 논의해 온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2000명 정원 증원’의 당위성을 구체적인 통계 수치와 함께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 수치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2000년도 의약법입당시 고령인구 비중은 7%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0%이고, 앞으로 10년 후인 2035년에는 30%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수요의 폭발적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사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의미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의사 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서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산을, 민형배 65.4%·이낙연 17.7%...4배 가까운 차이

KBC·리서치뷰 조사

제3지대인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출마 예정지 지지율이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지대 정당의 두 대표의 지지율이 민주당 현역 의원에 크게 밀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때 잠시나마 개혁신당에 함께 몸담았다가 헤어진 두 대표의 지지율 추이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KBC광주방송과 UPI뉴스가 리서치뷰에 의뢰

해 14·15일 광주 ‘광산’ 선거구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무선 ARS 10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 6.5%),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65.4%,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는 17.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어 안태욱 국민의힘 후보 7.2%, 전주연 진보당 후보 4.8%, 김용재 녹색정의당 후보 2.2% 등의 순이었다. 인천일보·경인방송이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5·16일 경기도 ‘화성’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무선 ARS

10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응답률 6.3%)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공영은 후보가 46.2%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23.1%, 20.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다수 여론조사에서 개혁신당의 정당 지지율이 5% 안팎에 머무르는 것을 고려하면 이준석 대표의 2등은 예상 밖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이관섭 교체 등 대통령실 전면 쇄신해야”

최재형 의원 “국정 피로감 쌓임”

국민의힘 최재형(서울 종로) 의원은 19일 ‘이종섭 호수 대사 및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논란과 관련해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를 포함한 대통령실의 전면 쇄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혹스러운 사건이 꼬리를 몰고 이어져 국정 운영의 피로

감이 쌓여가는 상황은 대통령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은 이 대사를 조기 귀국시키고 황 수석을 경질하는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혁신으로 위기에 서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라는 대의를 위해 우리 당은 이관섭 실장

교체부터 시작해 즉각적인 대통령실의 전면 쇄신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민심은 물과 같아 배를 띄울 수도, 뒤집을 수도 있다”는 의미의 ‘수족재주(水則載舟)’, ‘수족재주(水則覆舟)’를 언급한 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국민이 아니라 하면 아닌 것’임을 다시금 깨닫는다”고 말했다. 당에서 수도권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이 대사의 즉각 귀국과 황 수석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날 최 의원의 발언은 여기서 한 발 나아가 대통령실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촉구한 것이어서 파장이 주목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옥상스틸방수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건물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ODERN
사무실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광역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